

〈발표1〉

소원한 형제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 어머니의 간접적·우회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

박태영(숭실대)

신건철(숭실대 박사과정)

I. 서론

본 연구는 시아버지의 엄격한 가족규칙으로 인해 시어머니가 사용하고 있는 간접적, 우회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시부모간, 부부간, 형제간, 동서간에 갈등이 발생되고 결국 소원하게 된 사례를 다룬 것이다. Minuchin(1974)에 의하면 가족체계는 하위체계로 분화되고, 하위체계를 통해 가족체계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위체계는 가족구성원들의 경계와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잘 기능하는 가족에서는 가족체계에서 개별화와 통합성을 중요시하는 방법으로 작용한다. 만일 가족성원들이 그들의 걱정을 말하고 문제를 직면하며 그들 수수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더 건강해 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족체계에 적응하려고 하며 그들의 실제의 감정을 숨기려고 한다(Lewis, 1992).

본 연구의 내담자인 둘째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형과의 양육방식에 있어 어머니로부터 차별적 대우와 형과 비교를 당하는 의사표현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 부모-자녀간에 또는 형제간에 솔직하게 표현한 적이 없었으며 가정의 안정을 위해 묵인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도 형수와 아내를 형과 본인처럼 차별적으로 대하는 어머니에 대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며느리들 간에도 갈등이 심화되었고 형제 간의 관계에도 더욱 소원한 결과나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들간의 상호작용 즉 소원한 형제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어머니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인 간접적, 우회적인 의사소통방식이 솔직하고 직접적인 기능적 의사소통방식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결혼한 형제의 소원한 관계에 미친 요인들과 가족치료를 통하여 가족성원 간의 변화된 의사소통방식이 형제간의 소원한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위의 연구문제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가족상담 축어록을 중심으로 소원한 형제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 중 특히 가족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가족치료로 인하여 내담자의 가족성원들 간의 변화된 의사소통방식을 단일사례연구의 질적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질적자료분석 프로그램인 Atlas.ti 5.0을 사용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들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자료의 연구 분석 및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중 Miles와 Huberman(1994)이 제안한 시간에 따른 매트릭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담 전과 상담 후의 내담자의 증상과 증상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관련 상황을 분석하였다.

■ ■ ■ 중심단어 ■ ■ ■

가족규칙, 미분화,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 가족치료

II. 이론적 배경

1. 치료에 대한 이론적 준거틀

1)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

본 사례에서는 내담자와 어머니간의 정서적 미분화 및 아들과 미분화된 어머니를 분리시키고 큰아들의 가정 내에서의 부여되는 과도한 역할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버지의 개입 및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 내의 자아분화를 시도하였다.

2) MRI(Mental Research Institute)의 의사소통이론

본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가족 내의 안정적 융합관계의 유지 및 형제간의 위계질서와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부, 부모-자녀, 어머니-며느리 사이에서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찾고 그러한 의사소통방식과는 다른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질문

첫째, 소원한 형제관계 및 며느리간의 갈등에 있어 어머니의 간접적, 우회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둘째, 가족치료를 통하여 가족성원 간의 변화된 의사소통방식이 형제간의 소원한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2. 연구대상 및 상담기간

상담이 의뢰된 당시 내담자(31세)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남편(33세)는 직장을 다니고, 시아주버님(35세)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윗동서(32세)는 선생님이었다. 시아버지(72세)는 교육공무원으로 현재 정년퇴직 후 무직이며, 시어머니(60세)는 서울에서 큰 아들내외의 아들을 돌봐주고 계시며 가정내에서 어머니에게 과도한 역할의 부담이 부여되고 있었다. 상담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총 8회의 개별상담과 부부상담, 가족상담이 병행되었다. 치료에 참석한 가족은 시부모, 내담자 부부, 형님부부 총 6명이었다.

3.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 연구자는 내담자의 정신분열증 증상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 중 특히 가족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가족치료로 인하여 내담자의 가족성원들 간의 변화된 의사소통방식을 찾기 위하여 질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질적인 연구방법들 중 연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표적행동에 대한 개입의 효과를 관찰하여 분석하는 즉 변수간의 관계규명을 위한 것

이러기 보다는 개입방법의 효과를 규명(Polstol & Lynch, 1981:373)하는 질적연구방법인 단일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8회에 걸친 상담추어록과 상담 시에 기록된 메모,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문헌들을 활용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질적자료분석프로그램인 Atlas.ti 5.0을 사용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들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자료의 연구 분석 및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중 Miles와 Huberman(1994)이 제안한 매트릭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담 전과 상담 후의 내담자의 증상과 증상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관련 상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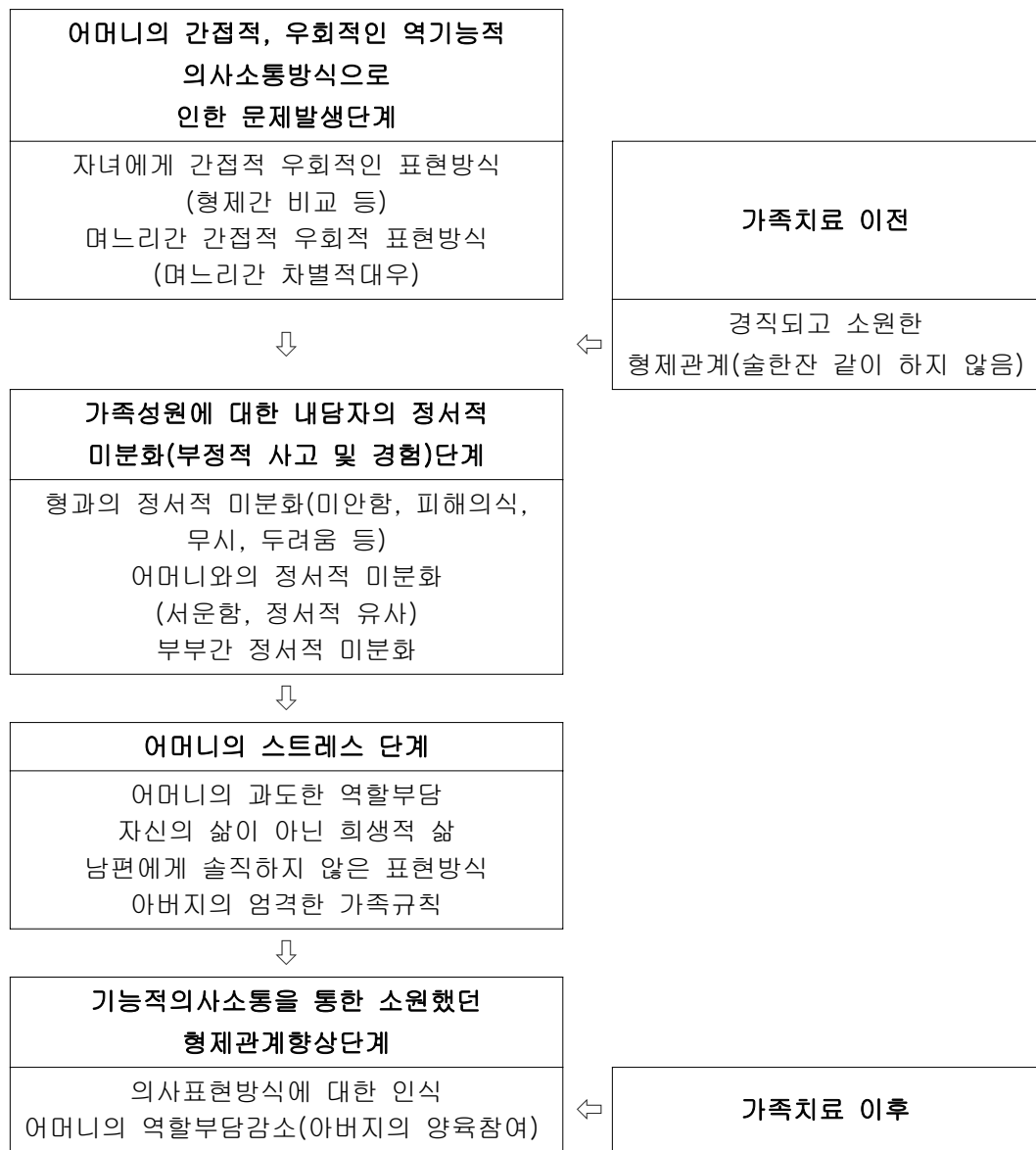
IV. 상담내용 분석

1. 상담개요

본 사례는 내담자의 부인이 남편의 소원한 형제관계를 향상시키고 싶다고 하여 의뢰된 사례로 상담의 대상자는 시아버지(72세), 시어머니(60세), 클라이언트(31세), 남편(33세), 시아주버님(35세), 큰동서(32세)로 구성되었으며, 시아버지는 교육공무원으로 엄격하고 올바르게 남에게 피해주지 말며 부부, 부모자녀 간의 예의에 대해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엄격한 규칙으로 인하여 가족들 간의 친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성장하다가 아버지의 외도 및 사업의 몰락으로 인하여 어린시절 부모와 형제들을 부양해야했으며 결혼 후에도 친정식구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야했고 결혼 후 집안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관리하며 현재는 맞벌이를 하는 큰 아들 내외를 위하여 일주일에 몇일씩 손자를 돌봐주고 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손자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둘째 아들내외한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사용하는 간접적, 우회적인 역기능적의사소통방식으로 인하여 형제관계 및 며느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악순환은 아들들이 결혼전 및 결혼 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2. 과정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간접적, 우회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으로 인해 형에 대한 피해의식과 소원한 형제관계를 겪고 있는 내담자의 문제가 가족치료를 통해 변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각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소원한 형제관계를 겪고 있는 내담자를 가족치료에 따른 변화과정 분석

3. 근거자료의 범주화

소원한 형제관계를 겪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가족치료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는 <표1>과 같다.

<표 1> 소원한 형제관계를 겪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가족치료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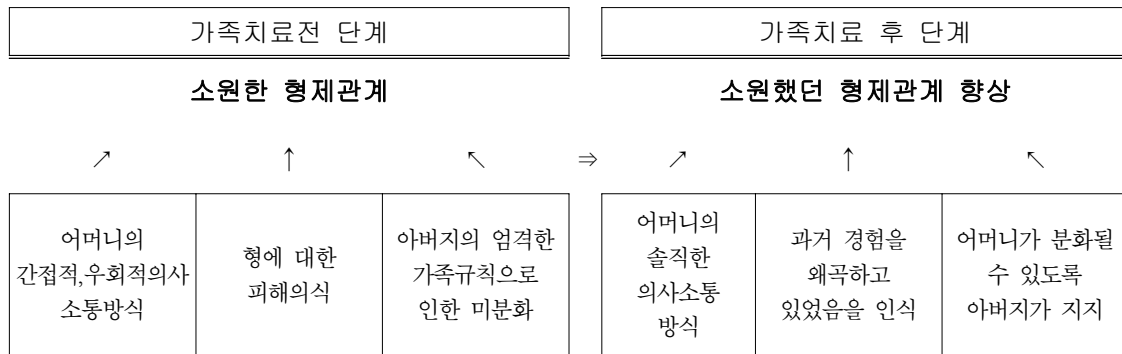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어머니의 간접적, 우회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발생	자녀에게 간접적 우회적 표현방식	형제간비교, 우회적의사소통방식, 과장되고 가식적 표현, 비공감적 의사표현
	며느리에게 간접적우회적 표현방식	며느리간 차별적 대우
가족에 대한 내담자의 정서적 미분화단계	형과의 정서적 미분화	형제간 다른 정서체계, 형에 대한 미안함, 피해의식, 형의그늘에 위축, 형이 무시했다고 왜곡된 인식, 형에게 양보하는 삶,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머니와의 정서적 미분화	어머니와의 정서적 미분화, 엄마와 정서적 유사, 서운한 감정
	부부간 정서적 미분화	동서간의 관계에 영향,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는 아내에 부담, 부부간 솔직하지 못한 의사소통방식
어머니의 스트레스단계	어머니의 과도한 역할부담	가정내 역할의 과도한 부여, 스트레스, 자녀의 경제적 미분화
	자신의 삶이 아닌 희생적 삶	희생적 삶을 살아옴
	남편에게 솔직하지 않은 표현방식	부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대화방식, 부부의 성적 갈등
	남편의 엄격한 가족규칙	고정된 부모의 역할강요, 미분화를 강요하는 아버지
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한 소원한 형제관계향상	어머니의 역할부담감소	아버지의 양육에 참여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인식	어머니 자신의 의사소통방식 인식, 형제간의 왜곡된 경험을 해소, 며느리간 이해

(1) 소원한 형제관계에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이 미친 요인들에 관한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에 따른 분석

① 어머니의 간접적, 우회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인한 문제발생단계<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용문
자녀에 대한 간접적, 우회적인 의사소통방식 (4)	형제를 비교하는 표현방식	<p>형: 어머니가 가끔씩 저 혼자 집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 동생은 그래도 크면은 뭐라도 한 자리 하겠는데 너는 공부라도 해라. 동생은 그런 것을 모르겠죠. 1:50(967:967)</p> <p>형: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녁 먹다가 니 동생 회사에서는 사장이랑 되게 친하고 한가닥 한다더라. 개 어릴 때 애들 몰고 다닌 게 있어가지고 뭣 좀 하긴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1:52(980:980)</p> <p>내담자 : 우리 현성이는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의 장점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형이 착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하는 장점을 못 쫓아가는 그런 느낌밖에 못 받았거든요. 1:53(1002:1002)</p> <p>내담자 : 예, 많이 비교하셨어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집에서 그렇고 웬지 학교에서도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형하고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니가 누구동생인가 말해봐라. 1:60(1105:1105)</p>

	우회적 의사소통방식	<p>내담자: 예,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제가 스트레스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머니가 작은 외삼촌이 됐건, 큰 외삼촌이 됐건 오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줘요. 본인의 능력이 안 되는데 허덕이면서 퍼주고 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하면서 나한테 그것을 다 풀어요. 1:8(120:120)</p> <p>내담자 : 어머니가 그 당시에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으셨었어요. 방광염 같은 것도 있으시고, 몸도 많이 힘드시고, 그런 상황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어떤 요구를 하면 자기 자신 몸이 부서지더라도 가서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같이 저희 집에 전화가 와서 제 와이프가 저한테 진짜 죽겠다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뭐 어떻게 될 것처럼 우시고 막 난리를 피시거든요. 그러면 와이프랑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1:10(145:145)</p> <p>내담자 : 형한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형한테 얘기해야지 왜 나한테 얘기 하냐고 니 형은 말하지 마 그러면서 왜 형한테 얘기해야 할 사항인데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1:54(1004:1004)</p> <p>형 :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걱정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얘기를 잘 못하세요. 그것을 저도 잘 못 느꼈는데 어떻게 느꼈냐면 제 와이프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제 와이프가 한번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그 얘기를 당사자한테 못하고 항상 남한테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1:55(1005:1005)</p> <p>내담자 : 근데 올라오셔서 거의 처음에는 매일같이 전화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한테 울고, 약간 몸도 좀 안 좋으시고 그랬거든요. 우울증도 옛날에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올라오면서 그게 좀 더 심해지신 것 같은데, 맨날 전화 걸어서 울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들어주죠. 왜냐면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으니까. 하루이틀삼일 되면 그럼 형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힘들면 대책을 세우던가 방안을 강구하던가 해야지 그러면 내가 형한테 말할까 그러면 형한테는 아무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희는 중간에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1:57(1018:1018)</p> <p>형 : 예. 동생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걸 당사자하고 얘기해서 해결을 해라. 왜 나한테. 1:59(1087:1087)</p>
	과장되고 가식된 표현	<p>내담자 : 니 형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현성이가 이거 이거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하면서 저한테 계속 더 많이 털어놓으셨거든요. 그니까 저는 굉장히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에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현성이가 최고야, 우리 현성이 밖에 없어라고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웬지 되게 순간적으로 그냥 맞춰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들렸어요 1:31(937:937)</p>
며느리에 대한 간접적 우회적 표현방식	며느리간 차별적 대우	<p>아내 : 오빠가 이런 관계다 보니까 이런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며느리를 맞으면서 며느리 간에도 차별이 생긴 거예요 1:15(204)</p>



<그림 2> 가족치료 상담과정에 나타난 변화의 과정

V. 상담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별상담과 가족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치료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총 8회기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가족상담을 하는 가운데 형제간의 소원한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원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가족 간의 관계와 현재의 부부관계, 동서관계, 시아주머니와 제수씨, 시동생과 형수, 시부모와 아들 부부관계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과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왔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과 사건을 통한 의사소통방식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형제간의 소원한 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시부모 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과 시아버지의 은근히 밀어붙이는 표현방식, 시어머니의 마지못해 반응하는 순종적인 표현방식,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가 부재한 요인, 그리고 아들에 대한 시어머니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방식이 나타났다. 아들들이 결혼 후에는 며느리들 간의 갈등 또한 형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담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시부모 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시부모와 자녀 간의 직접적인 표현방식, 형제간의 효과적인 표현방식, 또한 아들형제의 부부 간의 대화방식의 변화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직접적인 대화가 됨으로 인하여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방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즉, 본 사례를 통하여 외현적으로는 소원한 형제관계가 문제로 보여졌지만 단지 외현적으로 보여지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단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아니며,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체계 중 많은 영향을 주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에서부터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기 이전에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과 해결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예방적 접근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Friedman, E. H., (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Gurman, A. S., & Kniskern, D. P.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00). Family therapy: An overview(5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Lewis, J. A. (1992). Treating the alcohol-affected family. In L. L'Abate, J. E. Farrar & D. A. Serritella (Eds.), Handbook of differential treatments for addictions (pp. 61-83). Needham Heights: Allyn and Bacon.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Thousand Oaks, CA: SAGE.
- Minuchin (1974). Families &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